즉시 배포용: 2019년 9월 4일 **ANDREW M. CUOMO** 주지사

CUOMO 주지사, 허리케인 도리안(HURRICANE DORIAN) 대응 및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수상 구조요원과 자원을 노스캐롤라이나에 배치

태스크포스는 총 34 명으로 소방 전문가 21 명, 지역 기관의 태스크포스-2(Task Force-2) 요원 7 명, 환경보존부(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, DEC) 삼림 감시원 6 명으로 구성

Andrew M. Cuomo 주지사는 오늘, 뉴욕주 소방국(Office of Fire Prevention and Control, OFPC) 및 환경보존부(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)의 수상 구조요원 43명을 노스캐롤라이나에 배치하여 허리케인 도리안(Hurricane Dorian)에 대한 대응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. 허리케인 도리안(Hurricane Dorian)은 금요일 이른 아침경 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 이번 주 초, 주지사는 폭풍에 피해를 입은 지역사회를 돕기 위하여 플로리다에 자원을 배치했습니다.

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. "뉴욕은 기상 이변의 파괴력을 잘 알고 있으며, 다른 주들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 항상 적극적으로 나설 것입니다. 우리에겐 미국 최고의 비상 대응 인력과 자원이 있으며 이 고도로 훈련된 수상구조팀이 노스캐롤라이나의 대응과 복구 활동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."

배치 인력에는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(Division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)이 관리하는 뉴욕 태스크포스-2(NY Task Force-2) 요원들이 포함됩니다. 이들은 뉴욕주 소방국(NYS Office of Fire Prevention and Control) 직원 및 지역 응급 구조대, 뉴욕주 환경보존부(NYS 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)의 삼림구조대로 구성되었습니다. 태스크포스는 총 34명으로 소방국(OFPC) 소방 전문가 21명, 지역 기관의 태스크포스-2(Task Force-2) 요원 7명, 환경보존부(DEC)의 삼림 감시원 6명으로 구성됩니다. 이 팀은 조디악(Zodiac) 타입 고무 구명보트와 지원 트레일러를 동반하여 배치될 것입니다. 팀 요원들은 수상구조뿐 아니라 고각 로프 구조 및 K-9 수색과 구조 능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.

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 (Division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) 커미셔너 Patrick Murphy는 이렇게 말했습니다. "우리의 수상구조팀은 홍수 발생 시 주민들을 지원하는 데 폭넓은 경험을 가지고 있어 노스캐롤라이나 지역 비상

관리자의 대응 활동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. 강력한 폭풍에 맞서 주민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구조 전문가들을 배치해주신 Cuomo 주지사께 박수를 보냅니다."

환경보존부(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) 커미셔너 Basil Seggos는 이렇게 말했습니다. "Cuomo 주지사는 다른 주가 절실히 도움을 필요로 할 때 그들을 돕는 것을 최우선으로 합니다. 또한 뉴욕주 환경보존부(DEC)는 우리의 전문 응급 관리 및 수색, 구조 인력을 파견해 허리케인 도리안(Hurricane Dorian)의 잠재적 영향에 대한 대응을 지원하게 되어 자랑스럽습니다. 우리 직원들의 안전을 기원하며 이 중대한 임무에 자원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."

다른 주의 비상 상황을 지원하기 위해 수상구조인력을 배치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. 2017년 허리케인 어마(Hurricane Irma)에 대응하는 플로리다를 지원하기 위해 인력을 배치한 것이 첫 번째입니다.

###

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.governor.ny.gov
뉴욕주 | Executive Chamber | press.office@exec.ny.gov | 518.474.8418

구독 취소